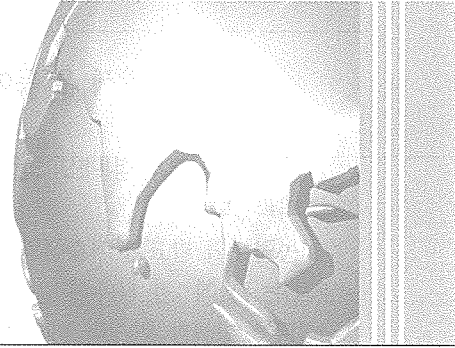


# 해외양돈뉴스

WORLD PORK NEWS



## | 일본

### 돼지고기 수입 감소세 지속

7월말 전년대비 22% 격감

일본의 돈육 수입량이 두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본 식육속보에 따르면 7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4천200톤으로 전월 6만5천800톤에 비해 17.6% 줄면서 지난 1월 5만1천700톤 이후 가장 적었다. 또 지난해 동기 9만3천600톤보다는 무려 42%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냉장은 1만7천400톤, 냉동 3만6천800톤으로 지난달에 견줘 각각 7.8%, 21.6% 적게 들어왔다. 하지만 냉장의 경우 전체 수입량 가운데 32%를 차지해 한달전 29%보다 3%p 비중이 늘었다.

이로써 7월말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42만9천965톤으로 05년 같은 기간 55만1천800톤에 비해 22.1%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 14만6천100톤(34%), 캐나다 10만2천977톤(24%), 덴마크 9만390톤(21%), 멕시코 2만3천274톤(5.4%) 순으로 들어왔다.

## | 미국

### 7월 돈육 생산량 줄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농무부에 따르면 7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70만3천톤으로 전월 75만2천톤에 비해 6.5% 가량 크게 줄었다. 또한 전년 동기 68만5천톤보다는 2.6% 증가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7월말 돼지고기 생

산량은 537만8천여톤으로 529만4천여톤에 견줘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돼지 도축두수는 788만두로 전달 834만두 대비 5.5% 적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 많았다.

### 돼지 값 상승세로 반전 8월 111달러 전월비 5.5% 상승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의 돼지 값이 다시 올랐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8월 평균 돼지 값은 100kg 기준 110.8달러로 전달 105달러에 비해 5.5%, 또 지난해 동기 107달러보다 3.3%가량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8월 미국 돼지 값은 6월 118달러를 제외하고 올 들어 가장 높았다. 반면 도체값은 100kg 기준 163달러를 기록, 한달전 166달러 대비 1.8% 떨어지면서 넉달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부위별 가격은 등심 2.4달러, 안심 5.7달러, 삼겹살 2달러, 갈비 2.9달러로 7월보다 2~6%하락했다.

## | 중국

###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입 감소

중국의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출은 4.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으며, 수입은 0.7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축산물 수출액은 17.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2.4억달러

로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는 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9.0%나 증가했다.

### 정체불명 질병에 '고심'

올해 여름 중국 남부 몇몇 중소규모의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4일 중국 농업부 대변인은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질병이 현재 발생 횟수가 상당히 줄었으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질병은 고열을 동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고온다습한 여름기간 동안 중국 남부에서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이 발생한 이후 중국 농업부는 전문 방역팀을 파견하여 질병예방과 확산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질병의 원인을 지속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 질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의 감정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또한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 농림부는 발생 지역 곳곳에 수의사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 농가들에게 방역 등 대처방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 육류가공업 성장 가속화

중국의 육류가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육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육류가공업은 2천544개로 전년 2천232개에 비해 14%(312개)가 늘었으며 총수입의 경우 2천289억7천만위안으로 04년 1천656억6천만위안보다 38.2%가 증가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이윤총액은 79억4천만위안으로 전년 50억1천만위안 대비 60%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에 대해 육류산업의 전망이 밝아 투자가 늘고 판매가 증가하면서 산업 및 수익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 러시아

### 돈육 생산·소비 모두 증가

최근 러시아의 양돈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러시아 농업마케팅연구소에 따르면 7월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7.4%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7월말 돈육 생산량도 전년 동기비 8.9%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 7월까지 돈육 소비량은 05년보다 약 20% 많아져 생산량 증가에도 돈육 가격이 전년대비 7%가량 상승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처럼 러시아의 양돈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의 소비가 늘어 수익성이 크게 제고된 데다 러시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발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돈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미산 돈육 수입할 듯

러시아가 미국산 돈육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 식품안전당국은 미산 돈육 수입을 위해 양돈업 및 돈육산업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조사 과정 없이 돈육 및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제 기준에 따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약 3개월여 소요돼 본격적인 수입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독일

### 월드컵 열풍에 유럽 양돈시장 호황

서유럽 양돈시장이 독일 월드컵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독일 돼지고기 수요의 급증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주위 국가들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독일의 인접국인 네덜란드에서는 독일로의 수출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영국의 네덜란드 돼지고기 수출은 6천톤으로 크게 증가했

다고 영국 정부는 발표했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kg당 0.25유로가 상승해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덴마크에서는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6월 한 달 kg당 0.05유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덴마크

### 생돈 증가세, 수출 둔육 감소세

덴마크의 생돈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은 감소했다.

최근 유럽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덴마크의 생돈 수출은 327만1천800두로 전년 235만1천500두에 비해 무려 39.1%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독일로의 수출이 298만마리로 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네덜란드 13만1천마리, 이탈리아 7만마리, 폴란드 5만마리 순으로 수출됐다.

반면 돼지고기의 수출은 113만1천톤으로 일년전 115만7천400톤에 견줘 3%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76만톤으로 전년 71만9천600톤보다 5.7% 증가했으나 일본 등 EU외 국가로는 37만1천100톤으로 04년 대비 15.2% 적게 수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 ■ E U

### 돼지 두수 정체 지난해 1억5천만두 04년과 비슷

유럽연합의 돼지 사육두수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영국 식육가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EU 25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1억5천172만마리로 전년(1억5천159만마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독일과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전년 수준이거나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EU 국가 가운데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독일의 경우 2천699만마리로 04년보다 2.8% 가량 늘었다. 반

면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EU 15개국 중 상위 5개국의 경우 각각 2천489만마리, 1천512만마리, 1천260만마리, 1천100만마리로 일년전 대비 2.2%, 0.3%, 6%,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생가맹국에서는 폴란드가 1천871만두로 04년에 견줘 7.6% 증가했으나 헝가리, 체코는 각각 385만마리, 272만마리로 전년에 비해 5%, 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유럽, 제2의 '항생제 제한 조치' 우려

최근 영국 신임 수의사회 회장인 데이비드 부쉬는 “오는 5년 이내 유럽에서 제2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처방서 발급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양돈농가에서 대장균에 의한 설사병과 호흡기 질환, 회장염 등을 치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항생제 제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국제 건강기구(WHO)와 미국 식약청(FDA) 등은 유럽에서 자돈의 대장균, 회장염, 호흡기 치료제인 세파로스포린 등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U,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

유럽통계국이 공식 발표한 2005년도 EU 15개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5년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2.2kg으로 1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해 4.2%인 1.7kg이 증가했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쇠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량은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돼지고기 소비량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스페인, 돼지고기 소비 EU 중 '최다'

스페인이 EU 국가들 중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서 2005년의 돼지고기 소비량을 국별로 살펴보면 스페인이 61.7kg으로 EU 국가들 중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경우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년대비 3.3% 감소하긴 했으나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었으며, 덴마크가 58.2kg을 소비해 스페인의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오스트리아가 56.8kg을 기록해 세 번째로 많이 소비하고 있었다.

한편 스페인은 지난 '95년과 비교해 16.2%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신장률도 EU 15개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 | 벨기에

### 블루팅병 발생

최근 유럽에서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이 블루팅병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에서 각각 블루팅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지난달 양, 소, 염소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발생지역의 가축 이동 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블루팅병은 모기붙이 등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전문가들은 모기붙이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북유럽까지 올라왔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 | 칠 레

### 돼지고기 수출 감소

4월말 3만톤 전년보다 11% 감소

칠레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칠레국가통계원에 따르면 4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14만1천톤으로 전년 동기 12만6천300톤에 비해 11.6%가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은 2만8천500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천948톤보다 10.6% 줄었으며 생산량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05년 4월

말 25.3%에서 금년에는 20%로 5.3%p 낮아졌다. 한편 4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는 599톤으로 일년전 151톤에 견줘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세 계

### 옥수수 가격 가파른 상승세

생산·재고량 증가해도 오름세 유지

6월 149불, 7월 154불, 8월 164불

최근 미국 농무성은 세계 사료곡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재고량은 다음과 같다.

△사료곡물 = 세계 생산량은 9억6천989만톤으로 전월과 같았으며 이 가운데 미국 생산량은 2억9천205만톤으로 전달보다 1.5% 증가했다. 세계 재고량 1억2천746만톤으로 한달전보다 0.9% 감소한 반면 미국은 3천525만톤으로 지난달에 견줘 12.3% 많았다.

△옥수수 = 세계 생산량 6억8천931만톤, 미국 2억7천880만톤으로 7월 예상치보다 각각 0.4%, 2.2% 증가했다. 세계 재고량은 9천288만톤으로 전망돼 지난달 대비 1.8% 늘었으며 미국도 3천131만톤으로 전월에 비해 14.5% 늘었다.

△대두박 = 세계 생산량은 1억4천980만톤으로 한달 전에 견줘 0.6% 증가한 가운데 미국은 3천782만톤으로 전달과 변동이 없었다. 세계 재고량은 516만톤으로 전망돼 지난달보다 7.7% 감소했으며 미국은 23만톤으로 전월과 같았다.

△대두 = 세계 생산량 2억1천774만톤, 미국 7천968만톤으로 지난달 대비 각각 1.1%, 2.7% 감소했다. 세계 재고량은 4천997만톤으로 전월대비 5.7% 감소했으며 미국도 1천224만톤으로 예상돼 전달보다 19.7% 적었다.

△원료가격 = 8월 중순 현재 사료곡물 시세는 C&F(운임을 포함한 가격)기준 미국 톤당 옥수수의 경우 164.3달러로 전월 평균에 비해 10달러(6.5%) 오르면서 지난 5월 145달러, 6월 149달러, 7월 154달러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대두박은 249.9달러로 지난달보다 1.8달러 올랐다. 